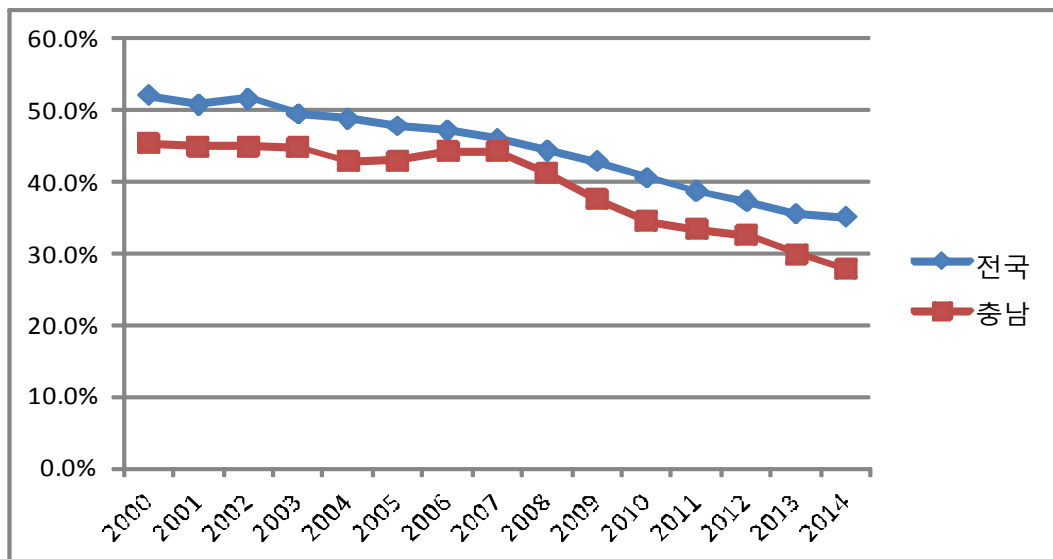


충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좋은 일자리로 미래 안심설계

1. 현황과 특징

》 충남의 고용안정성은 전국대비 상대적으로 높으나 비정규직 비중은 증가

- 고용이 불안한 임시직과 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비중은 2007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임
- 그러나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전국대비 비중은 2000년 2.8% 수준에서 2014년 3.3% 수준으로 약 0.5%p 증가함



자료 : KOSIS국가통계포털.

충남 비정규직 비중 추이

》 좋은 일자리(descent job) vs. 저임금 일자리(trash job)로 양극화 추세

-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미숙련 분야에 해당하는 기능·기계조작·조립 및 단순노무 종사자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속에서 좋은 일자리에 해당하는 관리자·전문가·사무종사자 비중 역시 증가함
- 반면, 서비스판매 및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충남의 일자리가 양극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충남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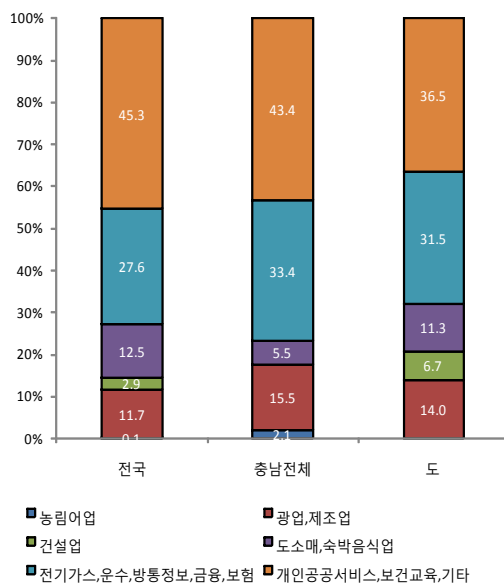
구분	2008		2014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계	961	100.0	1,156	100.0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21	12.6	160	13.9
사무 종사자	115	12.0	161	13.9
서비스·판매 종사자	167	17.4	200	17.3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258	26.8	231	20.0
기능·기계조작·조립 종사자	196	20.4	277	24.0
단순노무 종사자	103	10.7	128	11.0

자료 : KOSIS국가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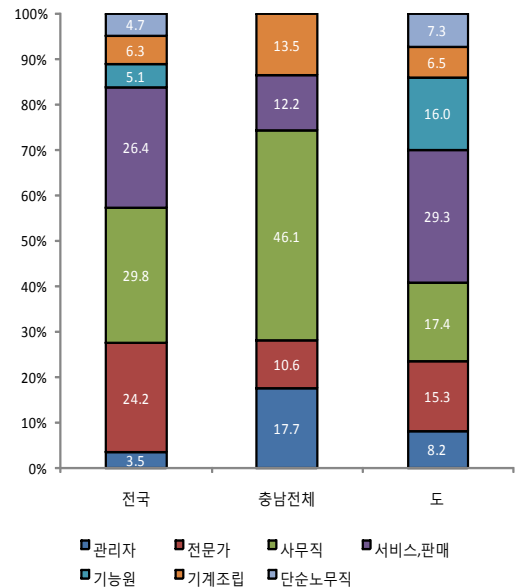
>> 타 지역과는 상이한 도내 청년실업자의 산업별·직종별 희망일자리 양상

- 도내 청년들은 타 지역에 비해 전기가스·운수·방송통신정보·금융·보험 분야의 일 자리를 선호함
- 또한 직종별로는 사무직 희망자의 비중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청년 실업자의 산업별 일자리 희망



청년 실업자의 직종별 일자리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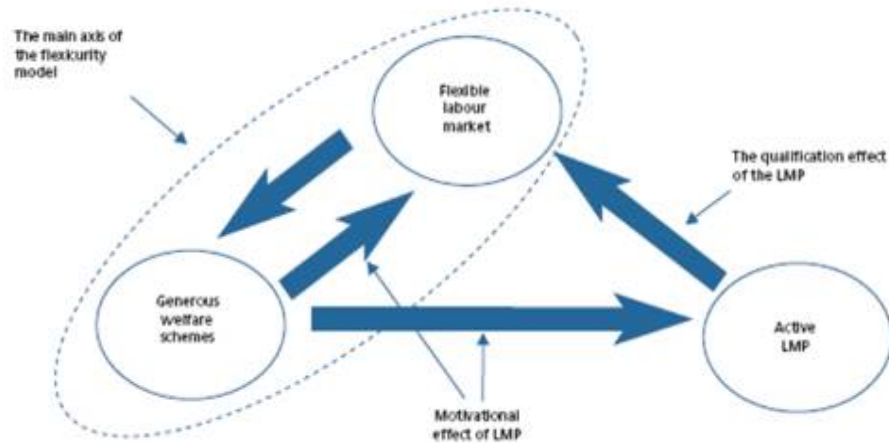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2010).

충남 청년실업자의 산업별직종별 일자리 희망

2. 대내외 여건

>> 최근 EU의 핵심고용전략은 유연안정성(Flexicurity)

- 세계화(globalization)로 인한 경쟁심화와 생산기술의 발달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요구와 맞물려 고용불안정 문제 대두
- 최근 EU 각국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안정을 양립함으로써 경제성장과 가계의 구매력 증대를 위한 임금소득분배간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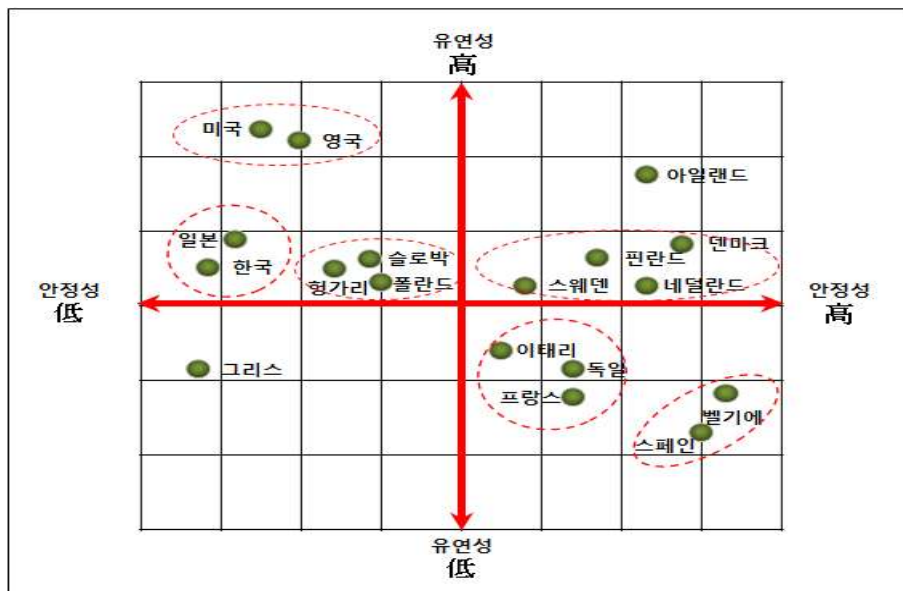


자료 : Madsen(2006).

EU 노동시장 정책 : 덴마크 황금삼각형(Golden Triangle)

>> OECD국가 평균을 상회하는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수준

-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OECD 국가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반면, 고용 안정성은 최하위 수준임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2010) 및 OECD 국가의 노동시장정책(장신철).

OECD국가들의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수준

>> 노동전문가 100인이 선정한 국내 노동이슈는 임금, 노동시간, 노동기본권 등임

- 임금, 노동시간, 정년, 일자리 등 노동자들이 일하고 대가를 받는 것과 노정갈등 및 비정규직 문제가 최근 핵심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양상임

노동 전문가 100인 선정한 10대 노동이슈

순위	현안이슈
1위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2위	공공부문 민영화와 공공기관 단체협약
3위	근로시간 단축
4위	노정갈등
5위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고용률
6위	노동기본권
7위	비정규직
8위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9위	노조법 재개정
10위	기타

자료 : 매일노동뉴스(2014).

3. 충남의 취약점 및 개선방향

>> 도내 고학력자의 타 지역 유출비중이 지나치게 높음

- 충남 소재 대학졸업자의 22.4%만이 충남지역 내에서 취업하며, 나머지는 여타 지역에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고학력 청년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양적팽창보다는 고학력 노동자를 유인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충남지역 대졸자의 취업시 지역이동 실태

구분			직장소재지				
			서울	경기	충남	기타	전체
학 교 소 재 지	충남	빈도	352	216	207	151	926
		비중	38.0	23.3	22.4	16.3	100.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 도조례의 규정된 사항만을 수행하는 절차유형(procedural type)의 거버넌스 한계 노정

- 충남 노사민정 협의회는 도조례인 ‘충청남도노사민정협의회운영조례’에 의거, 규정된 사항만을 일률적으로 수행하는 절차유형의 고용거버넌스 한계 노정
- 따라서 지역노동시장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실질적 지원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독자적 아젠다를 수립할 수 있는 협의체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충남 노사민정 협의회 내 실무위원회 현황

구분	구성	기능
노사관계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인, 위원8인	노동상담, 갈등조정 및 예방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상동	인적자원개발, 미스매치 해소
지역전략업종발전 위원회	폐지	업종발전전략개발, 업종별현안 논의
일자리 더하기 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인 및 위원9인	-
좋은 일터 만들기 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인, 위원8인	-

자료 : <http://www.cnen.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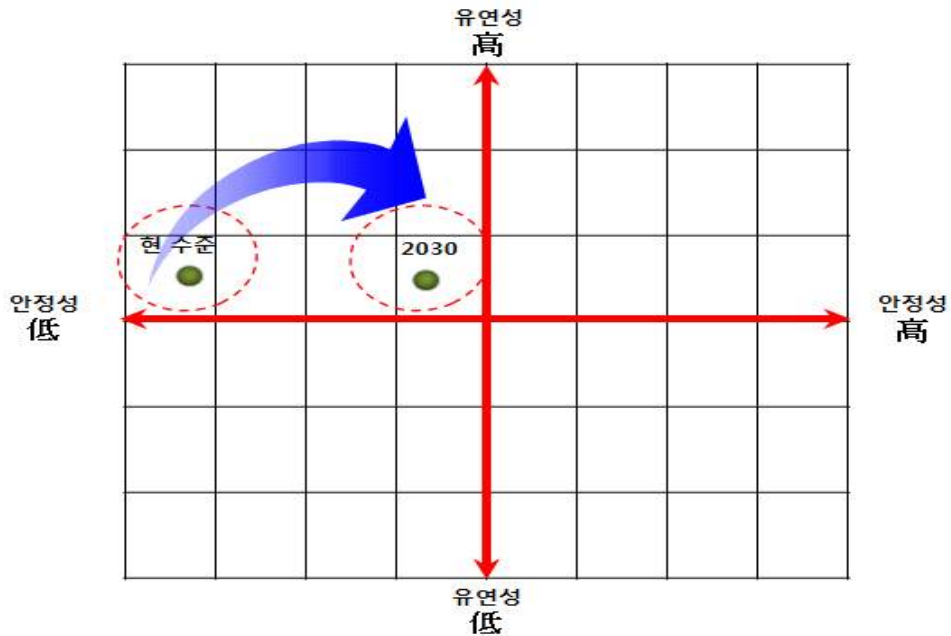
>> 기존 도내 산업현장에서 적용되는 통상임금체계는 노동의 가치 및 대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노정

- 통상임금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기업별로 임금의 구성과 체계가 복잡한데 기인하는 것임
- 더욱이 정부는 산업현장의 임금지급실태를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에 반영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이 부족하였음
- 따라서 도내 산업현장의 소모적인 분쟁요소 중 하나인 통상임금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내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을 표준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4. 미래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

>> 미래 전략목표

- 충남의 고용안정성 강화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 생산성-고용-소득의 선순환 구조 정착



>> 4대 정책과제

>> (정책과제 #1) 임시직 ·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적 배려 제고

- 임시직 ·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호와 근로유인 강화

>> (정책과제 #2) 좋은 일자리 만들기

- 양적팽창 위주의 단순한 일자리 보다는 고학력 · 전문인력의 지역 내 정착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지향

>> (정책과제 #3) 충남 지역노동시장 표준임금체계 구축

- 산업 · 학력 · 남녀 · 연령 · 직종별로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을 표준화함으로 충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 (정책과제 #4) 충남지역 노 · 사 · 민 · 정 협의회 활성화

- 勞使民을 政이 돕는 형태의 협의회가 아닌 勞使民이 政에 정책을 제안하는 현실 작동 가능한 고용거버넌스 구축 및 정착

5. 핵심사업(예시)

>> 일자리 찾기가 쉬운 충남 표준임금체계 구축

- 산업, 학력, 남녀, 연령, 직종별로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표준임금체계 구축

>> 충남 노·사·민·정 협의회 활성화

- 충남의 노동 아젠다 발굴이 현실 가능하도록 기존 위원회 재구성, 도차원의 행정정책 지원강화

>> 청년 YES(Youth Emploment Service)프로젝트 운영 개선

- 구직자 능력개발 및 기업 취업연계 전문성을 지닌 코디네이터 육성 및 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지원서비스 지원

>> ‘안심 미래’ 일자리 사업 시행(주민창안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 공공주도의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탈피, 민간 주도의 ‘安心 未來’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시행

관련계획

- 충청남도, 충청남도 민선6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2014
- 중앙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2011